

서울식물원

마곡
워터프런트에서
서울식물원으로,

그리고
시민에게로

박도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개요

위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26,956.96m ²
규모	(식물문화센터) 지상 4층, 지하 2층
설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식물문화센터

‘사람과 자연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공원을 목표로
양천길 남쪽은 도시민의 여가·휴식 교류를 즐기는
도시성이 강한 공원으로, 북쪽으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성장하는 자연성이 강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워터프런트의 주요 요소인 물을 중심으로
공원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식물원





주제정원 진입공간



©박영재 (주)심우중합건축사사무소 제공



©박영재 (주)심우중합건축사사무소 제공



©박영재 (주)심우중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식물문화센터 내부
하 옛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을 활용한 마곡문화관

© 박영재 (주)신아영종합건설사사무소 제공



© 박영재 (주)신아영종합건설사사무소 제공



© 박영재 (주)신아영종합건설사사무소 제공



상 주제정원 전경
하·좌 어린이정원학교
하·우 방문자 센터



©박영제 (주)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박영제 (주)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호수
하 옛정원

서울식물원은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대표공원으로서 지사적 의미의
장소성 강화, 도시생활문화의 접속,
생물종 다양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땅의 장소성 계승과 관련해서는
‘경작’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던 마곡의 경작문화를 계승하여
가드닝 문화를 도입하였고,
다양한 풍광을 연출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지형과 물을 설계개념으로
도입하였다.



© 2020 서울식물원 (주) | 서울식물원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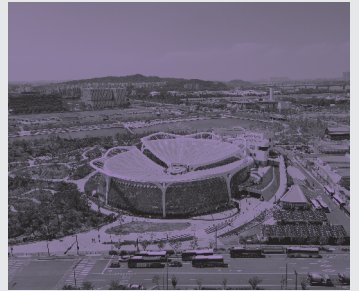
마곡 구상의 시작, 마곡 워터프론트

겸재 정선이 가장 사랑한 한강의 경치를 품은 마곡지구는 서울시에 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부지였다.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담고 있으며, 도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잠재적 가치를 품고 있던 곳이다.

2008년 서울시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전 세계에서 출품된 105개 작품 중 한강의 관문으로서 새로운 수변도시 생태계 개념을 제시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설계)의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삼우설계의 워터프론트 계획안은 100만 평 마곡지구가 추구하는 미래첨단산업단지로서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적 역동성과 상업적 활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강과 호수공원을 특화하여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살아 있는 물과 물의 순환(Heart of Magok is Nature of Living Water)’을 중심으로 도시·토지·물·사람이 어우러지는 미래 생태도시환경의 모습을 담았다. 워터프론트 계획안은 도심공원과 생태공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서울식물원과 공원이 완공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다. ‘사람과 자연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공원’을 목표로 양천길 남쪽은 도시민의 여가·휴식·교류를 즐기는 도시성이 강한 공원으로, 북쪽으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성장하는 자연성이 강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워터프론트의 주요 요소인 물을 중심으로 공원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박영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식물원
하 식물문화센터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박영채 (주)남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주재정원 진입공간
하 주재정원 전경

수(水)공간은 한강과 연결되는 주운수로와 정적인 호수로 구분하였다. 주운수로에는 마리와 함께 다양한 수변상업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였고, 호수는 경치로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보다 가까운 수공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강에서 유입되는 물이 워터프런트 공원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며 공원 전체가 ‘살아 쉼 쉬도록 하는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획하였다.

식물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식물원’으로 공원 계획 전환

마곡 워터프런트 국제현상 당선안은 ‘물’과 ‘공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도시설계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서울시 및 SH공사의 사업계획은 2012년 10월 ‘Bio Botanic Park’ 개념을 도입하면서 워터프런트에서 식물원과 공원이 융합된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2015년 11월 마곡 ‘서울식물원’이 착공하기까지 마곡 공원은 워터프런트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과 ‘공원’이라는 요소와 함께 ‘식물’과 ‘자연’이라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서울식물원은 인공시설물의 최소화과 자연요소의 극대화를 목표로 계획이 진행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장형 공원을 주요 개념으로 삼고 있다.



© 남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식물원 계획

마곡지구처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은 시행자(SH공사)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물과 자연을 주제로 한 공원이기에 공원 조성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시민들과 기업들이 참여하여 함께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개념은 생소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에서 식물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유래는 조선 말기 창경궁에 온실을 만들고 열대·아열대 식물을 식재하여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식물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식물을 수집하여, 연구·보급·보호하거나 관람을 위해 재배하는 시설” 또는 “과학적인 목적이나 전시목적으로 수집되어 자라고 있는 식물의 연구와 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실을 갖춘 정원”이다.

마곡지구 내 공원의 개념으로 식물원, 즉 보타닉파크(Botanic Park)의 개념이 도입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워터프런트에서 강조된 물과 순환의 개념을 식물과 자연으로 녹여 내는 것은 계획개념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유지 면에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첨단 연구 클러스터(BiT, GeT, BmT, InT 등) 등으로 특화된 산업단지가 개발되도록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원이 중심이 되는 공원의 개념은 연구클러스터에서 강조하는 바이오 생명, 과학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물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식물에 대한 문화를 전파하고 미래세대에게 생명과 자원으로서의 자연, 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업·자연·문화가 함께 융합하는 종합적인 서울식물원의 개념이 완성될 수 있었다.

공원 내 식물과 물에 대한 접근

서울식물원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식물에 대한 방향 설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식물원은 전시와 교육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시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원문화를 볼 수 있고 자생식물과 향토식물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교육 측면에서는 식물을 주제로 한 녹색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보타닉파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연구, 교육, 전시, 보전, 수집이라는 다섯 가지의 기능과 개념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제 (주)나무종알림 서울시무소케임



상 식물문화센터 내부
중 옛 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을 활용한 미국문화관



©박영채 (주)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호수
하 잔디마당

공원 내 식물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식물원은 열대와 지중해 두 기후대의 대표적 식물로 전시구상을 하였고, 각 기후대의 식물들이 분포하는 곳과 도시들이 연계되어 교육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식물원은 식물원 영역이 중심을 이루지만 공원 전체가 식물원으로 성장하는 개념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외부 공간의 식물을 구체화하였고, 저류지와 호수변 등의 습지식물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도입할 식물을 정할 때는 자원식물로서 가치와 보호되어야 할 식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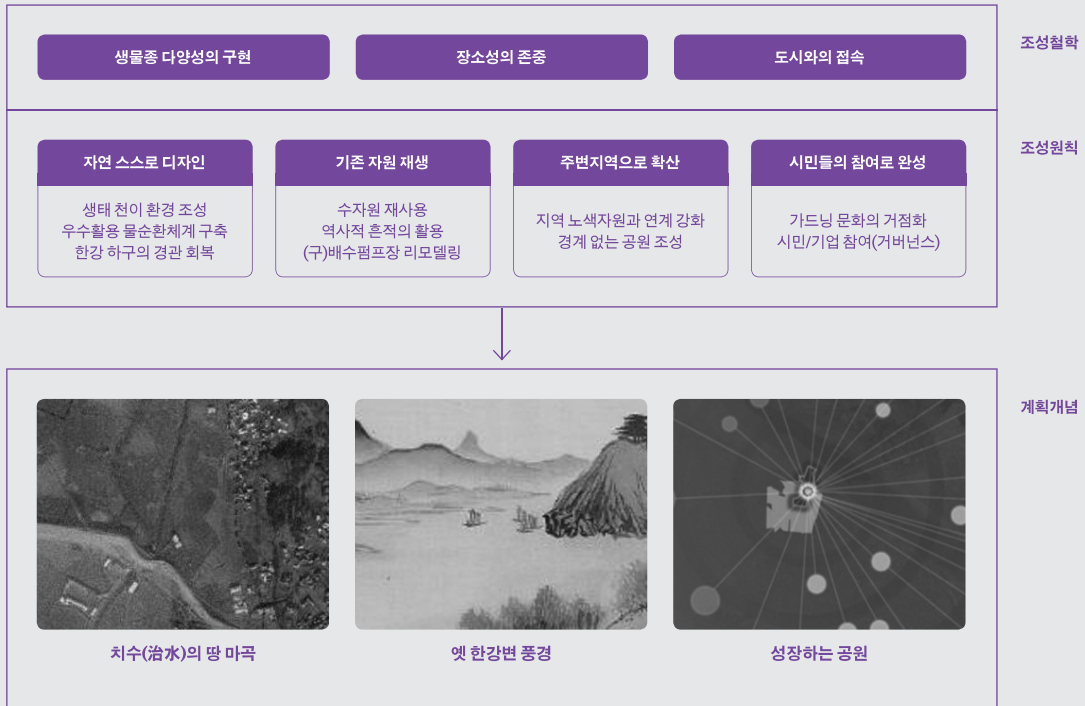
서울식물원은 하천생태복원을 통해 지사적 맥락을 회복하고,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여 식물생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주도록 계획하였다. 호수와 하천의 수위에 따라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환경 자체가 하나의 교육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원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물의 흐름이 자연 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질 정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모습은 서울식물원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식물원 조성 원칙

서울식물원은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대표공원으로서 지사적 의미의 장소성 강화, 도시생활문화의 접속, 생물종 다양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땅의 장소성 계승과 관련해서는 ‘경작’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던 마곡의 경작문화를 계승하여 가드닝 문화를 도입하였고, 다양한 풍광을 연출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지형과 물을 설계개념으로 도입하였다. 즉 기존 농경지 땅의 생김새를 공원 지형으로 적용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주제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에 녹여 내었다. 또한 배수펌프장과

수립조합의 복원계획을 통하여 농경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물종 다양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생식물 생태계, 육생식물 생태계, 천이영역 생태계, 조류·곤충 생태계 등의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호수·습지·초지·천이영역 등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큰 방향으로부터 네 가지 조성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공원 영역 내 천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자연적



서울식물원 조성개념

인 물순환 체계, 우수, 재생용수, 생태수로 등을 활용하여 자연이 스스로 공원의 환경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두 번째, 마곡 지역이 가지고 있던 서정적 풍경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옛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을 전시·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하철 용출수, 서남물재생센터 재생수를 활용하는 개념 또한 구상하였다.

세 번째, 서울식물원과 주변 지역의 개화산·궁산·수명산 등을 녹지를 통해 연결하는 구상을 하였으며, 마곡지구 주변 시가지와 도시적인 연결성을 강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시민들의 참여로 조금씩 완성돼 가는 공원 개념을 계획하였다. 한 번에 완성되는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 가드닝 문화의 발신지로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원으로 원칙을 설정하였다.



서울식물원 주요 공간계획

서울식물원 공간 디자인

서울식물원은 크게 식물원, 열린 숲 공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식물원은 주제정원·가드닝문화체험원·숲문화원으로, 열린 숲 공원은 진입광장·초지원·LG문화센터·둘레숲으로 구성된다. 호수공원에는 호수, 물가쉼터, 수변가로, 물가가로수길이 있으며 습지생태원은 유수지와 저류지로 구성된다.

양천길의 상부 북측 영역은 한강의 생태경관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상 및 수생태계까지 한강변의 자연적 식생경관을 연출하였고, 야생동물과 조류의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양천길 하부 남측 영역은 다양한 식생경관이 연출되도록 하였고, 영역별 성격에 따른 수종과 경관이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식물원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온실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정원이다. 일상의 식물과 특화주제식물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논의 지형을 복원하고, 다양한 식물의 성장조건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시 및 가드닝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정원과 함께 식물원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드닝문화체험원 영역이다. 어린이 정원, 과실수원, 채종원 경작지 등으로 구성된 이곳은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숲 문화원은 목본류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다양한 규모의 식물원 행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열린 숲 공원 영역에서 진입광장은 서울식물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옛 물길의 흔적을 살린 수경시설, 진입을 강조하는 축렬식재와 그늘 제공을 위한 녹음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진입광장을 지나 초지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국에서 자생하는 야생초화류를 만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마당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식물원의 입구 구성을 강조하는 연지가 조성돼 호수공원으로 이동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었다.

호수공원 영역 내 물가쉼터는 자연소재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중심이 되며, 호수공원으로 연결하는 전이공간 역할을 한다. 호수공원은 호수와 호수변 수변가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호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여름철 이용이 가능한 물놀이 공간과 식물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호수횡단보행교 등이 계획되어 있다.

©박영제 (주)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물가쉼터
하 호수횡단보행교



©박영채 (주)삼우종합건설사사무소 제공



상 어린이정원학교
중 옛정원
하 방문자 센터

습지생태원 영역의 저류지는 식물·조류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식물원 지원시설인 야외포지 등이 함께 조성되어 서울식물원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강변과 연결되는 한강연결보행교도 함께 계획되었다.

서울식물원 개장을 바라보며

마곡 워터프런트 국제현상 당선에서 시작한 공원 프로젝트는 서울 식물원으로 완공되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시, SH 공사, 삼우설계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겸재 정선이 가장 사랑한 풍광을 품고 있으며,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현대적 공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설계의 대상이자 시민들과 함께하게 될 공원의 주인공으로 의미를 두고 설계를 진행해 왔다.

11년 전으로 돌아가 워터프런트 개념을 선정하던 밤이 생각난다. 사람의 몸에 깨끗한 피가 순환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공원이라는 공간도 깨끗한 물이 순환해야 공원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과 개념이 서울식물원에 녹아 있다. 이제 시민들이 공원이 100살, 아니 그보다 더한 시간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다.